





체스에 비친 인간의 양면 프란체스코 리돌피 *Chess Portraits*



세상에 극단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하지 않다. 우리가 감히 단정지를 수 없는 선과 악은 그 경계가 모호하며 인간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지닌다. 작가 프란체스코 리돌피는 흑과 백 두 가지 색깔을 지닌 체스 말을 통해 인간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 김현주 기자



프란체스코 리돌피 Francesco Ridolfi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작가 프란체스코 리돌피는 졸업 후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사진작업을 했다. 그는 브뤼셀, 블로나, 일라노를 오가며 상업사진 작업을 해오다가 현재 초상사진가로 전향해 인물사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www.francescoridolfi.com

〈Chess Portraits〉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내게 체스란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존재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체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줘 종종 함께 게임을 하곤 했다. 나는 비록 체스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전히 친구들과 체스하는 것을 즐긴다. 체스판의 서로 다른 조각들을 의인화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몇 년 전이었다. 하지만 체스는 어릴 적부터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내 작품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모델은 어떻게 섭외하나.

작품에 꼭 맞는 모델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온라인상으로 모델을 모집해 지원자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일반인에게도 문을 열어뒀다. 하지만 인기 잘 하는 전직 모델이나 배우로서의 경력을 기진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발됐다. 모델 개개인은 놀랄 만큼 전문적이고 촬영에 성실히 임해 정말 칭찬하고 싶다. 사실 〈Chess Portraits〉에서 선보이는 의상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하지만 모델들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기 위해 이 불편한 옷을 입고 계속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모델의 의상이 매우 화려하다.

모든 의상은 〈Chess Portraits〉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다. 그동안 나는 역사 속 인물들이 입었던 의상에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작품을 위해 전통의상에 관련한 책도 읽고 전통의상의 진화 과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또 그동안 머릿속으로 의상을 구상했고 제도사를 찾아가 내가 구상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했다. 이후 작품에 적합한 옷감을 찾기 위해 조수와 함께 지역 곳곳을 여행했다. 의상 제작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전문적인 재봉사에게 전부 맡겼다. 그의 섬세한 손길 덕에 색다른 의상이 탄생했다. 의상은 각각 깊은색과 흰색으로 제작됐다. 이는 킹, 퀸, 나이트, 비숍 등 체스말의 성격에 따라 대상을 의인화하는데 큰 뜻을 했다.

작업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나.

나는 인물초상사진가로서 내가 촬영하는 작품의 대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과 강정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인물묘사법을 매우 좋아한다. 렌즈 앞에 선 피사체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강정들을 강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같은 캐릭터가 흑과 백 사이에서 다르게 표현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본성 중 선과 악이라는 서로 다른 욕망과 그 차이를 강조하고 싶다. 그림자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빛은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춘다. 어둠과 빛, 선과 악, 체스모형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양면을 보여주며 이 둘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특별히 선과 악을 대조한 이유가 궁금하다.

사실 〈Chess Portraits〉는 선과 악이 우리 모두에게 공존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상황에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선과 악은 우리가 각이야만 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실면서 반드시 미주해야 할 것들이다. 체스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일련의 표본을 제공했다. 이는 나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행 중인 작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현재는 〈Chess Portraits〉를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구체적인 작업은 없지만,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은 있다. 계획 중인 작업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보면, 예전에는 각각 같은 감이 있지만 '선의이원론'을 둘러싼 더 깊고 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